

# 고흥군, 친환경 생태탐사 남양 우도 에코 캠핑 열어

###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시아 탐험가와 함께 193종 324개체 찾아 기록



우도 에코 캠핑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모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우도 일대에서 '신비의 섬으로 떠나는 생태탐사, 우도 에코 캠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득량만에 자리한 우도는 면적 0.54km<sup>2</sup>, 해안선 3km의 작은 섬으로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며 잘 발달한 갯벌이 드러난다. 갯벌에서는 흰발농게, 칠게, 낙지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고, 숲에서는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후투티, 섬취파람새와 피꼬리 등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번 우도 에코 캠핑은 우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생태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총괄한 고선아 대표(동아시아인스 본부장)와 과학콘텐츠 전문그룹 갈다가 기획, 운영을 맡았다.

보성, 미력 농공단지 지원사업 착공 청년문화센터 건립

보성군이 미력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청년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미력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며 산업단지 활성화와 청년 정착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력농공단지는 현재 17개 입주기업과 17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지역 산업 거점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복지 기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2천여만 원(국비 50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8억 원)을 투입해 미력면 도개리 일원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청년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다.

해남군, 장마철 앞두고 재난 대비 '집중 안전점검'

해남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 내 소교량에 대한 고강도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

해남군은 26일부터 관내 10개 읍·면에 위치한 소교량 23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천 내 소교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인 토목 구조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노후화된 소교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위험도를 정밀 평가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진도군, 생활인구 늘리기 공모 선정

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1박 2일 진도 빼기, 진도나가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저출생과 고령화 기조 속에서 주민등록인구를 확보하는 것만 치중했던 기존 정책이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인구 뺏기 경쟁이라는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추진됐다.

등록인구의 개념을 벗어나 지역과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체류하고 소비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건강한 임신 준비, 미리 시작하세요"

장흥군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결혼·출산 연령 상승과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난임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신 전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가임 여성 풍진 검사비 지원 ▲예비엄마 임신제 지원사업 등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정근 기자

# 완도군, 도 주관 통합 돌봄 평가 '우수 기관' 선정



완도군 전라남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이 지난 21일 전라남도 주관 「2026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군은 군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복지 등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돌봄 모아 완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기관과 읍면 사무소, 통합지원협의체, 민간 복지 기관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협력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 돌봄 욕구, 주거 환경, 가족 지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왔다. 특히 완도대성병원, 고금의원, 보건의료원과 협력하여 '권역별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에게

방문 진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군은 퇴원 환자, 장기 요양 진입 전후 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군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요양, 돌봄,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완도형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군민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